

무차별적인 살인범죄가 줄고 있다. 무법천지를 연상케 할 정도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취급되고 있다. 특히 이틀 범죄는 하나 같이 살해동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소 약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다니며 사흘 동안 4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지난달 25일 구속된 천모씨의 행각은 자못 충격적이다. 개평 2500원 때문에 같이 노름을 하던 두 사람을 모두 칼로 찔러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졌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늘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살인'

천씨는 12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1시간 후에 2년 전 자신이 노점상을 할 때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한 사람을 또 살해하고, 14일에는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부부를 숨지게 했다. 더욱이 천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두 10명 가량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그런가하면 24일에는 17살의 청

소년이 동네 오락실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것도 일곱과 배를 찔르는 등 잔인하기까지 했다. 8일에는 철강회사 회장부부 등 9명을 연쇄살인해 붙잡힌 정두영 사건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정씨는 범행 당시 단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

았다. 뿐만 아니라 3월에는 중학생이 아버지 꾸중에 분개해 알지도 못하는 여중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욕구가 엉뚱하게도 우연히 마주친 여중생에게 표출된 것이 다. 또 1월에는 늦게 다닌다고 혼계하는 부모를 살해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범행동기나

대상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수법도 잔인한 '정신이상적(사이코) 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를 "사회 전체가 도덕이나 남에 대한 배려보다 물질적·동물적 본능충족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상황에서 좌절과 소외 등을 느끼면 발작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나누는 삶을

실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 범죄는 이처럼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작은 분노'에서 출발한다는 점과 비이성적 분노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이들은 사회나 가정에서 소외됐다는 자기 박탈감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는 "성내는 자는 그 아버와 모든 형제를 거역하고 해친다. 성내는 자는 이렇게 잔인함이 많으리라"고 말하고 있다. 또 〈법화경〉에서는 "마음에는 세 가지 때(垢)가 있다. 탐하여 구하는 욕심,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진심(瞋心), 그리고 미련하여 어리석은 마음이 그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에 의한 슬픔과 근심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사회현상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더 불어 사는 사회의 윤리의식이 무너진 데서 초래된 비극이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개평 2500원 안 준다고 오락실 자리 비키란다고 아버지에게 꾸중 들었다고

환경 처리시설 "짚는다" "안된다" 지자체들 다름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다투는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심으로 다투는 것은 마치 어둠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고, 변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변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피로써 피를 씻으며,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탐욕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에 매달리느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잡아랑경〉

지역이기주의가 그렇다. 최근 환경처리시설 건설을 놓고 지역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부처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

송파구는 96년부터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성남시와 협의가 안돼 지난해 9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시킨 상태고, 강서구도 부천시와 이같은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은평구는 지난해 1월부터 고양시와 근접한 곳에 쓰레기 압축적량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양시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고, 중랑구도 지역 주민들과 구리시 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 노원구 월계2동 한 주부가 무의탁 노인부부를 방문, 요구르트를 전하며 건강상태를 묻고 있다.

무의탁노인 140명에 매일 요구르트 전달

서울 월계2동 동사무소

'하루 100원짜리 요구르트 하나나 사랑을 전한다' 서울 월계2동 사무소가 공공근로 아홉마 6명을 고용, 지난해 7월부터 혼자 살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40명에게 매일 오전 요구르트를 전달해 오고 있어 화제다.

요구르트 구입비용은 15명의 동사무소 직원과 주민 8명이 한 달에 1만원씩 내는 돈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한 돼지저금통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또 공공근로 아홉마들은 무의탁 노인들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집 청소와 식사 준비 등 힘든 일을 도와주고 노인들의 외로움까지 덜 수 있도록 이야기 상대가 돼 주기도 해 호평을 받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카발라국 니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비교할 수 없는 배움이 있다. 병든 이에게 베풀면 두 배의 복을 얻고, 과격한 사람에게 베풀면 백 배의 복을 얻으며, 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베풀면 백천 배의 복을 얻나니, 그 이상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분별보시경〉

꼭 필요한 곳에 내미는 자비의 손길이 값지듯 이들의 선행은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경찰서비스 '아직도 뻔뻔'

서울경찰청 '민원인 응대상태' 양형조사

친절구호는 요란한데 실제는 어떨까.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민원인 응대상태'에 관한 양형조사를 벌인 결과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나타냈다.

조사단이 밝힌 불친절 사례를 보면 경찰의 고압적인 말투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 민원인 무시와 민원업무 떠넘기기, 편의시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고압적인 말투의 경우는 교통에 남금을 납입하러온 민원인에게 "얼마야, 5만원이야?"라든지, "전부 밖에 나가 있어, 얼른 나가"라

고 하는 등과 같은 사례. 또 민원인들이 들어와도 '소 닭보듯' 쳐다만 보는 '무성의'와 '무관심'한 태도 등도 지적됐다.

이밖에 민원인의 접수를 서로 떠넘기거나 담당조사가 빈번이라며 접수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잡아랑경〉을 보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악덕이 따라다닌다고 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솔의 미덕을 잃음으로써 더 이상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경찰은 봉사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심(下心)'이야말로 경찰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대학 인사-학사 비리 '여전'

교육부 '감사백서' 발표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국·공·사립대학 및 시·도 교육청 등 1백24개 교육기관을 감사한 결과를 담아 지난달 20일 발표한 '감사백서'에 따르면 대학 인사·학사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재단이장이 겸직은 인사를 교수로 채용하고, 자격미달 학생을 합격시켰는가 하면, 출석일수도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A학점을 주는 등 대학의 교수인용·입시·학사 비리가 만

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만사항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안되느니라. 벼슬에 있으면서 그러한 다섯 가지 마음에 매달리면 자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어느 집단보다도 깨끗해야 할 대학이 온갖 비리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부정부패에 오염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라가 살려면 대학이 살아야 한다.



이정덕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

가족 구성원의 책임의식

'가정은 있어 가족은 없다'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가정. 어쩌면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있는 탓은 아닐까.

맨드라미가 있는 마당, 꼬꼬닭, 멍멍이, 사냥개,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그리고 함께 지낸 농사일... 이런 생활배경이 사라지고 급작히 나타난 콘크리트 문화에서 영위되는 현대 가족은 마치 망망대해에 뜬 조각배처럼 고독하다.

식구가 줄어든 핵가족이 이동에 편리해졌지만 오려 버려 대가족에 비해 오순도순한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가정의 구속력이 크게 약화됐음을 안타까운 일이다.

산화와 정보화 사회를 살면서도 어릴 때와 같은, 그리고 상하질서가 무너진 생활환경, 서로를 어렵게 본든 이기적 개인주의, 금전적 가치의 노예화 등이 원래 가정 깊숙히 파고 들어 원래적으로 가정은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문제의 요체는 이 약해진 가족 응집력을 어떻게 복원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현대의 가족은 모처럼 저녁 밥상 모여 앉게 되더라도 TV에 모든 것을 빼앗긴다. 고개는 TV를 향한 채 멈춰지고 서로 나누는 애정거리도 드라마 안에서 맴돌기 일쑤다. 서로를 느긋이 마주 보면서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느낌을 진솔히 나누지 못한다. 함께 참여하는 가정협업(協業)도 없으며, 자기능력껏 직업을 얻어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 바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다.

가족은 자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한다. 입으로도 말고 눈으로도 말하고 서로 오가는 고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대화에 서둔다. 왜그러지 어 살아야 한다.

색해케만 느껴진다. 배려와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자리잡기까지 한다. 몸으로, 눈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 말로 하는 대화보다 가족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책상위에 장미꽃 한 송이를 꽂아 두고 남편 주머니에 사람의 족지를 넣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하는 일은 말로 하는 표현보다 더욱 좋을 때가 있다. 가족간에 애정을 깊게 하려면 '함께 하는 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집안 청소, 들 바꾸기, 음식 만들기, 나들이 등등, 내 가정을 항상 이웃과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웃과 함께 지내면서 정을 나누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덕목이다.

가족 구성원은 '깃줄'이기 이전에 먼저 가족에서 '좋은 구성원'인가를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가족의 불은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요즘처럼 '혈연'보다는 '우정'을 더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에서 가족 구성원의 책임의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랑하고 관심갖고 이해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은 혈연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오늘날 가족을 더이상 혈연으로만 묶어놓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사회가 다원화되면 필수로 가정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기 마련이다. 이성을 토대로 한 '우정' 중심의 가족관계는 그나마 우리의 전통 가치를 복원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다.

불교의 원시경전을 보면 부부간, 자녀간, 심지어 주종간의 윤리조차도 상호작용으로 보면서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인연관과 연기설은 특히 오늘날의 가정윤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처님이 가족 구성원 서로서서 '혈연관계'보다 '인연관계'로 대하라고 가르친 것도 이같은 사상이 때문이다.

가정의 달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절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득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일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회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여시아문에서 파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입문)

『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부타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야 후라도 공저, 김홍권 번역/B6 변형 242쪽/값 5,500원
-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이제일 지음/B6 변형 196쪽/값 4,500원
-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렐 스님 편역/B6 변형 178쪽/값 4,000원
-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법)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를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B6 변형 278쪽/값 5,500원
-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법)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공덕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B6 변형 330쪽/값 6,000원
-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법)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영조 지음/B6 변형 334쪽/값 6,000원
- 401 허공의 팔곡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중환 지음/B6 변형 282쪽/값 5,000원
-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학·학술)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B6 변형 196쪽/값 4,500원
-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학·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부타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중서 지음/B6 변형 182쪽/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